

의인이 하나도 없다

성경말씀: 렘5:1-6; 26-31

지난 주: 하나님의 회개 촉구,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켜야 한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나무들을 제거해야 한다. 좋은 목양자를 주신다. 방황이 끝난다. 세상이 복을 받는다.

신구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 심판을 하기 전에 경고하고 피할 길을 알려준다.

소돔의 운명(창18:16-33), 소돔은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 사회, 섹스에 미친 사회, 동성애
에 미친 사회,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50, 45, 40, 30, 20, 10명, 10명으로 인해 멸하지 아니하리라(18:32).

렘5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 준다. 결론: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무엇을 하려느냐?(31)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고 하신다(1절). 단 한 사람
예루살렘 전체에서 찾아봐라.

1.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는 자, 2. 진리를 구하는 자: 실행과 원칙이 있는 자

사람, 하나님의 형상(창1-2),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답기를 원하신다.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짐승과 같은 존재(시49:20),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는 존재

A. 판단의 공의, 의롭게 행하는 것(미6:6-8, 약2):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 부모 자식, 사회 구성원
덕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세우는 사람, 대통령

B.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예수님이 진리이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세상에
서 얻는 지적인 진리 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해 그분께 붙어야 한다.

예레미야의 행동 개시

1. 보통 사람들(2)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교회에 가고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

거짓 맹세(11-12),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 역사를 다스리지 않는다.”
예배드린다고 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나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4),

고통 받는 사람들(3), 고통을 통해 대개 순종을 배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

파라오처럼 오히려 마음이 강퍽하다.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으나 한 사람이 없다.

2. 전략을 바꾸어서 고위층에게 나아감(5). 제사장, 정치인, 이들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의인이 하나도 없다(5:5). 이들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명예와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며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다(26-28): 텃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속임수로 크게 되고 부유하게
된다. 기름지고 빛이 난다.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 극심한 양극화

3. 예루살렘의 자녀들(7). 우상 숭배, 간음하고 창녀들의 집에 모이고 아웃의 아내를 겁탈함.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이들은 다 말과 같은 짐승이 되고 말았다(8).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제때에 배불리 먹었다(7, 8). 그런데 유다는 섹스에 미친 나라가 되고 말았다.

대언자들을 무시한다(13). “그들에게서는 뜨거운 바람만 나온다.” 목사와 성도들 모두에게 문제

4. 하나님의 결론(30-31): 지도자와 백성의 총체적인 부실

대언자: 진리 대신 거짓을 대언함

목사들의 죄악,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 기복/변영 신학
제사장: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할 것을 구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겔

44:23).

백성: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한다. 현대 교회 목사들의 타락 - 진리 추구 소홀히 함, 멸시함, 세습, 성적 타락, 사치, 낭비 - 은 성도들의 무지와 용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하나님의 도시라 불리는 예루살렘은 소돔보다 더하다. 한 명의 의인이 없다. 아브라함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나은가? 한국은 나은가? 강남 스타일, 성당 스타일, 교회 스타일, 세상 쫓기에 급급하다. (2012년 9월 20일, 조선일보), “신자 300만명, 소속 교회 1만개로 한국 개신교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장에서 교단 운영을 맡고 있는 집행부 측이 외부인을 통제한다며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고 회의 중에 집행부 일원인 총무가 가스총을 꺼내 드는 일이 벌어졌다. 이 교단은 차기 총회장 추대를 놓고 현 집행부와 반대 진영이 치열하게 싸워왔다. 현 집행부 쪽 총무 황모 목사는 반대파 대의원들이 자신의 발언에 제동을 걸자 “나는 지금 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달라”며 가스총을 꺼내 들었다.

예장 합동은 개신교 교단 중에서도 각별하게 경건한 신앙과 바른 삶을 강조하는 교단이다. 사랑의교회를 서울 강남의 작은 개척 교회에서 한국의 대표적 교회로 키우고 젊은 후계자를 찾아 맡긴 고(故) 옥한흠 목사를 비롯해 한국 개신교의 많은 지도자가 이 교단 소속이다.

이런 교단을 이끌어갈 집행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일부 교단 책임자의 유흥업소 출입 문제가 시비가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교단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세 기둥을 세우고 경건한 삶을 살아온 신도들을 욕보인 것이나 한가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목사들의 교회 세습과 교권 다툼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찾는 발걸음도 줄어들고 있다. 떨어진 개신교 이미지를 다시 붙잡아 세우려면 무엇보다 목사들부터 자기 주변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가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떨까?

그가 우리 집에 오면 어떨까?

예레미야가 3000년을 더 살았다고 하면 의인을 찾을 수 있을까?

전도서 기자의 결론(전7:20):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의 결론(롬3:9-12). 사람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신다.

5:22 설명(창1:9-10, 셋째 날), 바다의 엄청난 힘(쇠나 바위가 막아주지 않는다), 바다의 모래가 막아준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5:6, 15

심판의 이유(19): 영적인 간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입어야 한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 이것은 온 인류의 문제이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죄, 모든 사람이 죄와 범법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 의를 찾아 헤매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

사도 바울과 이스라엘: 진리를 모른 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썼다(롬10:1-4).

죄의 삯은 사망(롬6:23)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리와 의를 주실 수 있다(요14:6; 고후5:21).

결론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지니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가?